

투어 번호
LKNJG6STQB

비밀의 탈출 (19일)

19일 · 18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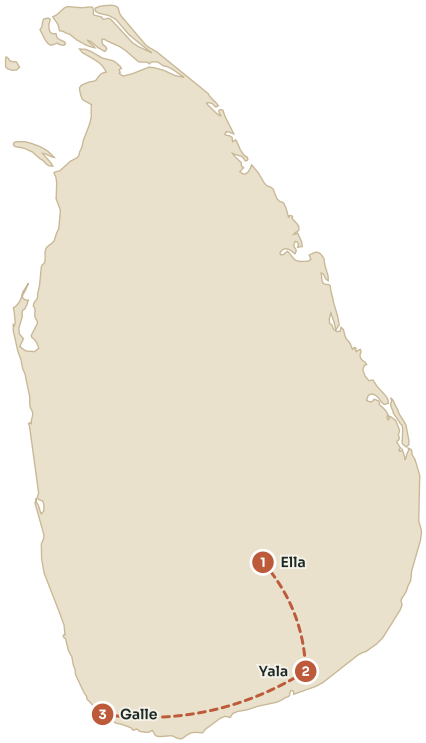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9일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 전역을 아우릅니다: 서쪽 해안, 문화 삼각지대, 고지대, 남동쪽 저지대, 남쪽 해안까지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이며 진정한 휴식을 위해 여러 다지박이 숙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네고롬보의 해변에서 시작하여 담불라와 폴론나루와 주변의 고대 도시로 이동한 후,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 지역으로 올라가 엘라와 얄라의 야생동물 지역으로 내려가 갈레 주변의 해변에서 오랜 체류로 마무리합니다.

주요 명소로는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 담불라의 동굴 사원, 캔디의 이빨 사원,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호튼 평원과 월드스 엔드, 나누 오야에서 엘라로 가는 기차 여행, 얄라 국립공원의 사파리, 갈레 포트의 역사적 거리가 있습니다. 시기리야 근처의 소 수레 타기와 카타마란 사파리,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정원 방문, 누와라엘리야 근처의 운영 중인 차 농장 투어 등 길을 따라 마을과 농장 경험이 포함됩니다.

이 투어의 속도는 특히 엘라와 갈레의 마지막 며칠 동안 여러 날의 여유로운 시간을 허용하므로, 빽빽한 관광 일정이 아닌 깊이 있는 경험과 휴식 시간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투어입니다. 지역 간 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기사 가이드가 있는 프라이빗 차량으로 진행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1~2일차)

서부 해안의 네곰보에서 이틀간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랜 어업 전통을 간직한 해변 마을입니다.



네곰보 비치

네곰보의 모래사장은 섬 서부 해안에 자리하며, 바로 앞바다에서는 수백 년 전통의 어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산호와 열대어가 가득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해안 가까이에는 50년 된 난파선을 탐험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3 네곰보 → 담불라

내륙으로 이동해 담불라로 향하며, 가는 길에 피나웰라 코끼리 보호소에 들릅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이 석굴 사원에는 부처의 생애를 담은 고대 벽화와 함께 수백 개의 불상과 여러 신들의 조각상이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걸쳐 모셔져 있습니다. 사원 단지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그레이트 뉴 모나스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피나웰라 코끼리 보호소

사바라가무와 주 피나웰라 마을에 위치한 이 보호소는 서식지를 잃거나 길을 잃은 어린 코끼리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현재 약 70마리의 코끼리가 생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육 코끼리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5세기에 세워진 시기리야 바위 요새로 당일 여행을 떠난 뒤, 담불라 근처에서 마을 체험을 즐깁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 시대에 건설된 시기리야는 사자의 발 모양으로 꾸며진 아치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자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유명한 고대 벽화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 테라스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옛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이날에는 시골길을 달리는 소달구지 체험, 잔잔한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수확을 앞둔 논 사이를 걷는 산책이 포함됩니다. 전통 요리 시범에 이어 장작불로 요리한 가정식을 연잎에 담아 즐기는 점심 식사가 이어지며, 스리랑카 마을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Day 5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중세 수도 폴론나루와를 방문하고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폴론나루와

약 800년 전, 폴론나루와는 스리랑카 중부 평원을 다스린 왕들의 수도였으며, 활발한 시장과 수많은 사원이 있는 번영한 상업·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유적들을 통해 전성기 도시의 모습을 선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세 시간 코스의 사파리에서는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관목지와 숲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50여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합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6 담불라 → 마탈레 → 캔디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농원을 거쳐 캔디로 이동한 뒤, 도시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유포리아 스파이스 앤 허벌 가든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근처에 위치한 이 정원은, 향신료와 허브 본래의 특성을 보존해주는 열대 기후 속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향신료 투어를 통해 각 식물의 용도와 아유르베다와의 관계를 배울 수 있으며, 여러 언어로 설명이 제공됩니다.



불치사(사리寺)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보관하고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내부 통로와 홀은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곳곳에 조각된 기둥과 금박을 입힌 조각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7 캔디 → 페라데니야 → 캔디

캔디 외곽에 위치한 왕립식물원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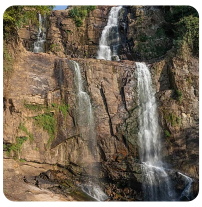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은 넓은 부지에 란, 향신료, 약용식물 등 4,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희귀한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걷고, 캐논볼 나무를 구경하며, 현수교를 건너고, 미로처럼 조성된 산울타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8 캔디 → 누와라엘리야

고원 지대로 올라가며 폭포와 차 농원에 들른 뒤, 영국 전원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고산 도시 누와라엘리야에 도착합니다.



람보다 폭포

람보다 폭포는 스리랑카에서 열한 번째로 높은 폭포입니다.

A.Savin · FAL

맥우즈 차 농원

가이드와 함께하는 이 차 농원 투어에서는 차의 종류, 가공 과정, 그리고 실론티가 뛰어난 품질을 지니게 된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상업적 차 재배는 1852년 영국인 농장주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의 룰레콘데라 농원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1824년 중국에서 들여와 페라데니야 정원에 심었던 초기 차나무 이후의 일입니다.



학갈라 식물원

이 식물원에는 그늘진 산책로와 색색의 미로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Own work of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그레고리 호수

호숫가를 따라 걷는 산책으로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누와라엘리야

차 산지 중심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이 자국의 전원 풍경을 재현하고자 조성한 도시로, 조지안 양식부터 퀸 앤 양식에 이르는 주택들, 잘 손질된 잔디밭, 성공회 교회, 골프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해발 약 6,200피트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눈에 띄게 시원하고 청량합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9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과 멋진 전망으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당일 여행을 떠납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이 공원은 고산 초원과 구름 숲이 공존하며, 다수의 고유종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볼거리는 "월드 엔드" 절벽에서 펼쳐지는 장관과, 시원한 물보라를 뿜어내는 베이커스 폭포이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들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10 누와라엘리야 → 엘라

엘라로 이동하는 날로, 아침 하이킹이나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을에서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엘라 록

약 세 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하이킹 코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인 엘라 록으로 이어지며, 도중에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반다라웰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갭, 그리고 바둘라 철도 노선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누오야–엘라 기차 여행

이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은 차 농원과 안개 낀 산간 마을들, 그리고 하푸탈레 주변 풍경을 지나며, 가는 길에 산과 숲, 폭포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hamal N · CC BY-SA 3.0



엘라

남은 시간은 호텔에서 여유롭게 보내거나 엘라 마을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11 엘라

엘라에서 온전히 자유 시간을 보내는 하루입니다.

Day 12 엘라 → 얄라

엘라에서 얄라로 이동한 뒤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Day 13 얄라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날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섬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에서 진행되는 세 시간 코스의 사파리에서는 스리랑카 표범, 물소, 스리랑카 늘보곰, 그리고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4 얄라 → 우상고다 → 루마사라 → 갈레

해안을 따라 갈레로 이동하며, 라마야나 전설과 관련된 두 곳에 들른 뒤 구시가지를 둘러봅니다.



우상고다

이 해안 지역은 나무가 거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사문암 암반에 함유된 독성 중금속 때문에 일부 작은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황량한 풍경은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로 인해 생겨났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라바나 왕의 비행 전차를 위한 공항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A.Savin · FAL



루마사라

우나와투나 해변 근처에 위치한 이 언덕 정상에는 하얀 불교 다고바가 세워져 있으며, 하누만이 산지와니 약초를 찾아 드로나기리 산을 옮기던 중 떨어뜨린 조각들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는, 스리랑카의 다섯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또한 시타가 랑카에 머무는 동안 피신했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포트

갈레는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 도시였으며, 이곳의 요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구시가지에는 박물관, 등대,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길들이 있어 가이드와 함께 도보로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5 갈레 (15~18일차)

남부 해안 갈레 지역에서 나흘간 자유롭게 머무는 일정입니다.



갈레 비치

갈레 주변의 해변들은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모래, 시원한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있으며, 해안을 따라 고급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바다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감상하거나, 제트스키와 윈드서핑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9 갈레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BIA)

여유로운 아침과 조식을 마친 후,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